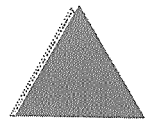


'93 정유회사 경영실적분석



-상공자원부-

- '93년중 정유 5사의 매출액은 법인전체 기준으로 13조 3,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10.8% 증가하였으며,
 - 석유화학부문 등 기타사업을 제외한 정유사업부문의 매출액은 12조 3, 480억원(추정)으로서 전년대비 10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당기순이익은 법인전체로 볼 때 1, 038억원으로 전년대비 598억원 증가하였으나,
 - 정유사업부문만 볼 때는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어
 - 전년도(300억원 적자)보다 다소 호전되기는 했으나, 여전히 낮은 이익률을 보임.
- 사별로 보면 쌍용정유의 순이익이 794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으며,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호남정유로 나타났음.
- '93년에 전체 정유사들의 경영실적이 전년에 비해 호전된 것은 주로 호남정유와 현대정유의 손익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임.
 - 호남정유는 BTX 생산판매부문

에서 세전이익이 약 170억원 수준 증가하는 등 석유화학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것이 전체 경영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,

-현대정유(주)는 증가(1,651억원)로 인한 지급이자 감소 및 증질유분해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당기순손실액이 306억원 감소('92말 △792억원→'93말 △

486억원)한 것이 손실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됨.

-다만, 경인에너지는 BTX부문에서 세전이익이 약 100억원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음에도 정유부문에서 '92년중 20만B/D의 정제시설 증설로 인한 감각상각비 및 지급이자 증가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-그밖에 경인을 제외한 각 사가 순이익이 다소 호전된 것은 걸프사태 이후 지체되어 왔던 정유사에 대한 원유도입손실 보전이 '93년중 거의 지급완료되어(손실보전 소요잔액 : '92말 4,602억원→'93말 377억원) 금융비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때문으로 평가됨. ♣

정유사 경영실적 추이

(단위 : 억원)

	1991	1992	1993	'92대비 증감
매 출 액	100,526	120,288	132,222	12,934(10.8%)
매 출 원 가	90,978	108,338	118,921	10,583
판매 및 일반관리	5,925	6,887	8,146	1,259
영 업 이 익	3,623	5,063	6,155	1,092
영 업 외 수 익	3,458	3,862	3,474	△389
(수 입 이 자)	(1,969)	(2,528)	(2,297)	(△231)
영 업 외 비 용	7,095	7,391	7,407	16
(지 급 이 자)	(4,661)	(5,376)	(5,538)	(162)
(환 차 손)	(1,564)	(1,182)	(1,510)	(328)
경 상 이 익	△14	1,535	2,221	686
특별손실, 법인세등	461	1,095	1,183	88
당기순이익(세후)	△475	440	1,038	598

정유사별 경영실적 추이('91~'93)

(단위 : 억원)

		유 공	호 유	경 인	쌍 용	현 대	계
매출액	1991	40,201	27,083	7,649	18,139	7,454	100,526
	1992	47,209	31,039	13,149	20,429	8,462	120,288
	1993	53,270	34,375	15,865	20,784	8,928	133,222
	증가율	12.8%	10.7%	20.7%	1.7%	5.5%	10.8%
순이익	1990	313	411	74	259	△1,167	△110
	1991	245	466	43	403	△1,632	△475
	1992	293	462	△295	772	△792	440
	1993	354	670	△293	794	△486	1,038
	증가액	61	208	-	22	-	598